

## 광주세계수영 입장권 판매율 95%...대회 흥행 청신호



광주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입장권 판매가 목표 대비 95%(판매금액 기준)를 돌파하면서 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켜졌다.

10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따르면 대회 개막이

틀 전인 이날까지 입장권 목표 판매량 36만9000매(75억원) 중 31만5000매(71억원)를 판매해 목표 금액의 95%를 돌파했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최고의 명장면을 보여줄 하이다이빙과,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펼쳐지는 오픈워터수영은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 목표량 100%를 넘어섰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될 대회 하이라이트 개최지도 이미 매진된 상태이다. 스피드 경기인 경영과 불속의 아

목표 판매량 36만9000매 중 31만5000매 판매

하이다이빙 · 오픈워터수영 · 개회식 전석 매진

름다운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수영, 다이빙, 수구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전까지 각 기관들의 단체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회기간 동안 시민 등 일반 판매를 더하면 충분히 100%가 판매될 것

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위는 단체구매가 개인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경기장별 빈 좌석이 있을 것을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입장권 판매량을 실내 종목인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은 목표대

비 110%, 실외 종목인 수구, 오픈워터수영, 하이다이빙은 120%로 늘려진 경기장을 만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 현장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매표소를 운영한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은 목표치의 매진을 넘어진 경기장의 만석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

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의 입장권 발행량은 41만9000매(89억4000만원)으로 조직위는 이 중 36만9000매(75억원)를 판매 목표로 세우고 있다.

입장권은 대회 입장권 홈페이지(<https://ticket.gwangju2019.com>)를 통해 구매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599-7572)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은홍 기자

## 전남도 '5·18·과거사 지원센터' 만든다

오는 15일 신설...팀장 포함 총 3명 전담팀 구성

전남도가 전남지역 5·18민주화운동과 과거사를 지원하는 센터를 신설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5·18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일제강점기 및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민주화 과정에 이르는 과거사를 정리·지원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린다.

오는 15일 신설되는 '5·18민주화운동 및 과거사 지원센터'는 팀장을 포함한 총 3명으로 구성된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체계적 5·18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기념행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기념 공간조성, 사적지 지정 등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업무를 맡는다.

또 내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5·18 민주유공자 지원, 범도민 기념행사 마련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22명에 대한 생활 지원과 도내 거주 청소년 대상 근로정신대 피해사실 교

육사업도 한다.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과 합동위원회 개최, 유적지 정비사업, 사건 바로알리기 교육 등 한국전쟁 전·후의 과거사 정리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그동안 1명의 인력이 담당해왔던 5·18 관련 업무를 전담팀이 처리하게 됨에 따라 그동안 방치돼 왔던 5·18사적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5·18을 전남 민주주의의 역사적 특수성을 반영해 계승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등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남에는 5·18시설물 87곳이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홍남순 변호사, 조아라 여사, 윤한봉 선생 등 전남 출신 유공자들이 많이 있는 데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여순사건 피해자 관련 행정업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체계적 지원이 필요해 전담 조직을 만들게 됐다"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국기게양 연습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남부대국제수영장에서 시상요원들이 국기게양 연습을 하고 있다.

## 광주·전남 장맛비...오늘까지 최대 40mm

초속 10m 안팎 강풍 부는 곳도...비·바람 피해 유의

10일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강수량은 광양 광양읍 4.5mm, 여수 돌산·신안 가거도 1.5mm, 순천·보성·별교·영광·염산 0.5mm 등을 기록하고 있다.

비는 이날 오전 중 광주·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었으나 11일 오전이면 모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 예상강수량은 10~40mm다. 지역에 따라서는 초속 8~1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다.

광주기상청 관계자는 "장마 전선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는 예상보다 강수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겠다"면서 "비·바람에 따른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가 없도록 주의 해달라"고 당부했다.

신봉우 기자

## "수능 다가오는데"...고3 결핵 판명 '불안'

전남교육청, 목포 3학년 학생 등 129명 역학조사

전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목포 모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 1명이 결핵 확진자로 최종 판정돼 격리 조치됐다.

이 학생은 지난 5월 초 1차 결핵 검진에서 결핵양성 반응이 나타나 최근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역학조사에 나선 질병관리본부는 9일 이 여학생과 접촉한 같은 학교 학생 117명과 교직원 12명 등 129명을 대상으로 X-선 검진을 실시했다. 검

진 대상 학생은 모두 수능을 앞둔 3학년 학생들이었다.

도교육청 보건팀 관계자는 "X-선 촬영 결과 (유소견자) 양성 반응이 나타나 경우 해당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잠복 결핵검사와 함께 치료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지역 초·중·고교에서는 지난 2017년 이후 18개 학교에서 26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했다. 2017년 17명, 2018년 10명, 올해 2명 등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2명, 중학교 2명, 고등학교 2명 등이다.

김정환 기자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대한민국 최초 '블루 플래그' 국제인증 획득

# 완도

안전하고 깨끗한, 해수욕장으로 오세요!

해수욕장명	개장기간
신지 명사십리	7.08. ~ 8.25.
금일 명사십리	7.19. ~ 8.18.
신지 동교	7.19. ~ 8.18.
약산 가사	7.19. ~ 8.18.
청산 지리	7.19. ~ 8.18.
청산 신흥	7.19. ~ 8.18.
보길 애송	7.19. ~ 8.18.
보길 중리	7.19. ~ 8.18.
보길 동리	7.19. ~ 8.18.
생일 금곡	7.19. ~ 8.18.
소안 미라	7.19. ~ 8.18.

생일 금곡 해수욕장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금일 명사십리 해수욕장